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올해는 우리 마산교구와 오스트리아 그라츠-셱카우교구가 자매결연을 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 경축의 해를 어떻게 지낼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50년 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책 한 권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우리가 가진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라츠에 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하고 글을 부탁하고, 지금은 작업 막바지에 있는데 보완 교정 감수를 거쳐 올 9월에 『그라츠-셱카우교구와 동행 50년』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1971년 9월 24일 마산과 그라츠, 양 교구장 주교님의 서명으로 시작된 자매결연에서 서로 합의한 다섯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 성소의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나 특히 유럽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그라츠-셱카우교구에 신부가 필요할 경우 마산교구는 신부를 파견 지원한다.”입니다. 이 오랜 약속에 따라 신의를 지키며 우리 교구 신부님 두 분이 지금 그라츠교구에서 현지인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또 6월 둘째 주일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이 되면 우리 교구 각 본당에서는 ‘부족한 사제성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라츠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바치며 그라츠로 사제를 파견해서 사목적 도움을 주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교구청 성소국에 부임해서부터 거의 매일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맡은 직무가 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지만, 성소자 감소 현상은 교회의 위기이고 그 위기는 우리에게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소 주일은 성소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에 더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자각시킵니다.

“좋은인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아멘.



최문성 마르코 신부 | 교구 성소국장



제 1 독 서	사도 4,8-12
화 답 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제 2 독 서	1요한 3,1-2
복 음	요한 10,11-18

주일 진례

▶ 성소 주일 특집 특별 탐방 3면



성 요셉: 부르심의 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해 12월 8일, 요셉 성인이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된 지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인께 바치는 특별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셉 성인은 특별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저마다의 인간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인물입니다. 성인은 딱히 놀라운 일을 한 것도, 고유한 은사를 받은 것도,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만한 특별함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하느님의 눈에 특별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성취했습니다.

요셉 성인은 우리 저마다의 부르심에 있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꿈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삶의 꿈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할 때에, ‘사랑받는 것’이라는 대답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내어 줄 때 비로소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꿈들을 보여 줍니다(마태 1,20; 2,13; 19,22 참조).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성인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꿈이 안내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인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느님께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들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들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의 약혼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그를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였지만,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세 번째 꿈 이후, 네 번째 꿈은 다시 한번 그의 계획을 변경하게 하여 나자렛으로,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실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온갖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주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합니다. 성인의 받아들임은 능동적 수용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굳건한 의지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아버지의 마음으로’, 4항) 성인께서 모든 이들, 특히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꿈이 실현되도록 식별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도우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섬김입니다. 이는 요셉 성인의 여정과 성소의 여정을 특징짓는 말입니다. 자기 증여의 구체적인 표현인 섬김은 요셉 성인에게 그저 고결한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하나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보금자리를 찾고 준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는 헤로데의 분노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집트로 피신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러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타향살이에서조차 노동으로 가정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전형인 기꺼이 내어 주는 마음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호자요 교회의 보호자인 요셉 성인을 성소의 보호자로 여기게 되어 기쁩니다. 실제로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에서 그분의 보호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마태 2,14)라고 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요셉 성인이 민첩하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릅니다. (다니 3,41)

고도 헌신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사려 깊고 배려하는 보살핌이 참다운 성소의 징표이며 하느님 사랑으로 감도된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꿈들을 실현시켜 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고, 관대한 섬김과 배려 어린 보살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요셉 성인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소를 관통하는 세 번째 특징인 성실성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마태 1,19)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조용히 일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계획에 인내로 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성실성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하느님의 성실성에 비추어 봅시다. 요셉 성인이 꿈에서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초대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 약속에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마태 1,20)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 성인처럼 자신의 삶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하느님께 “예.” 하고 대답하는 이들을 따르는 후렴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실성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이는 소박함에서 나오는 일상의 순수한 기쁨입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것, 곧 성실하게 하느님과 맺는 친교 그리고 이웃과 맺는 친교를 지켜나가는 이들이 증거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너그럽게도 여러분은 하느님을 여러분 삶의 꿈으로 택하였습니다. 순간의 기쁨만을 가져오는 덧없는 선택과 감상의 시대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실성을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형제자매들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진한 나이테를 만들며 사제의 길을 준비하는 광주가톨릭대학교

성소 주일을 맞아 광주가톨릭대학교를 찾았다. 이름과 달리 광주가 아니라 나주시 남평읍에서도 외따로 떨어진 학교로 향할 때 건축물의 독특한 지붕이 시선을 끌었다. 캠퍼스 초입에 서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청동상의 절연한 자태는 그 후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딱 맞아떨어진다. 이 학교의 본래 이름도 '대건'이었다.

1959년에 로마 교황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1962년 대건신학교로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75년에는 대건 신학대학교로 바꾸었다가 1985년 광주가톨릭대학교로 개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여 년 전 광주시 쌍촌동에 있던 캠퍼스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나주시 남평읍에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광주대교구를 비롯해 전주교구, 제주교구, 마산교구의 사제를 양성하고 있다.

마산교구는 처음에 광주에서 사제 양성을 하다가, 대구에 신학교가 생겨 옮겨갔고, 부산신학교가 생겨 또 옮겼다. 그러나 최근 부산신학교의 폐교로 부산교구 신학생들은 대구로, 마산교구 신학생은 광주로 옮기게 되었다. 2019년에 광주에서 입학식을 치른 1학년과 5학년이 먼저 남평 캠퍼스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1학년과 5학년은 다른 교구 신학생들과 함께 영성관에서 생활한다. 올해부터는 7학년 부제반까지 모두 옮겨와 완전체로 출발하게 되었다.

신학생들은 마산교구관, 광주교구관, 전주교구관, 제주교구관에서 각각 생활한다. 130명 중에서 마산교구는 24명이다. 광주가 많고 제주가 좀 적으며 마산은 중간이다. 1학년 3명, 2학년 5명, 3학년 4명, 4학년 2명, 5학년 1명, 6학년 3명, 7학년 6명이다. 그 밖에 군입대나 휴학생이 몇 명 있고, 모라토리움 5명이 더 있다. 모라토리움이란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1년 정도 오지 선교를 하는 등 더 나은 사목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탄탄하게 다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신학생이 수련하는 덕목에 대해 김종훈 엠마누엘 교수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네 가지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인성, 지성, 영성, 사목이다. 예전에는 지성과 영성 양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인성과 사목 양성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다. 모라토리움 과정에서 사

목의 덕목을 더 갖추 수 있고, 1학년과 5학년은 영성관에서 인성을 키우는 과정을 수련하게 된다.

마산교구 교수 신부는 김종훈 신부와 변종원 요셉 신부 딱 두 분이다. 24명 중 영성관에서 생활하는 4명을 빼면 10명씩 한 분과 공동체 생활을 한다. 6시 기상부터 마지막 끝기도까지 신학생들과 일정에 맞추어 기도하고 공부하고 상담하고, 엄마 아빠처럼 챙기고 달래고 먹이고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종종 만남의 방에 모여 요리도 하면서 정도 쌓고 공동체 정신도 익히게 한다. 밝은 모습으로, 재미있는 생활로 이끌려고 백방의 궁리를 한다.

우리 미래의 영성을 이끌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나이테를 만들고 있다. 교수 신부들에 의지하여 일 년, 이 년……, 열 개의 촘촘한 나이테가 완성될 때까지 이 숙연한 전당에서 고뇌를 이겨내고 있다.

광주교구와 함께 사용하는
마산교구관(앞쪽)



같은 동물끼리 이러기냐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생명,살이 - 바우네 가족 이야기. 글 손승휘. 그림 이재현.

할머니는 아라가 풍당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라를 당신의 허벅지에 눕혀놓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 씀하셨다. “좋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기도 하단다. 네 아이를 위해서 네가 먼저 튼튼해야 해. 많이 먹고 편하게 쉬어야만 한단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골라서 먹고 골라서 눕고 그래야 한단다.

할머니는 또 바우에게도 신신당부하셨다. “년 이제 네 자식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네가 노력해야 한단다. 너무 멀리 나다니지 말고 항상 조심하렴. 화를 내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만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하느님께서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드시고 함께 살아갈 삶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키우며 삶을 개척해나가는 일입니다. 여자에게는 생명선택권이 아닌 생명지킴권을, 남자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삶을 지켜내고 삶을 꾸려가며 성장시킬 힘을 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하얀 친구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라가 자세히 보니까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운다. 아라는 슬며시 하얀 친구에게 가서 옆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친구들이 보면 우스운 모양이겠지만, 같은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하얀 친구는 한동안 서럽게 울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래도 잠이 든 하얀 친구 옆에 계속 있어주었다. 바우가 다가와서 아라 옆에 엎드렸다. 풍당이도 따라와서 잠자코 아라와 바우 곁에 엎드렸다. 이상한 일이다. 친구들이 죄다 방으로 들어와서 하얀 친구처럼 엎드렸다. 달마도 누렁이도 초코도 모두 와서 나란히 엎드렸다. 그렇게 모두 잠이 들었다.

미워하는 마음

달마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조용히 물러났다. 그때 앞쪽에서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사람도 달마도 서로 놀랐다. 쾅! 달마가 짖자 사람도 놀라서 달마에게 막대기를 휘둘렀다. 달마는 그 순간 몸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다. 달마는 막대기를 든 손을 물어뜯었다.

달마, 안 돼. / 저 사람이 나를 잡아가려고 했어. / 바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볼일을 보려던 것뿐이야. / 나한테 울가미를 씌우려고 했다니까? / 그건 등산용 지팡이야. 할머니도 가지고 있던 거란 말이야. 넌 네 가슴속에 있던 미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아무거나 막대기만 보면 전부 울가미로 보이는 거야. / 정말? / 그래, 미워하는 마음. 그게 널 힘들게 하는 거야.

바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바우는 친구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생각해 둔 게 없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해 두었어야 했다. 달마는 한쪽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친구들의 눈치만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우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달마 아니라도 누구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야.

미, 미안해. / 아니야, 달마. 네 잘못이 아니야. 미안하지 않아도 돼.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야 할까요? 누구의 탓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켜 죄인의 낙인을 찍어야 할까요?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고 누구의 탓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탓’은, 사람을 변명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며,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건,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죄인이라 낙인찍힌 누군가도, 도움과 구원, 사랑의 대상입니다(마태 25,36).

약속

그런데 앞쪽에 사람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바우는 순간 결정해야만 했다.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하다. 그냥 달려들어서 돌파할 수도 있을까? 그러다가 급하면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할머니와의 약속이 생각났다. 언젠가 술에 취한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와서 행패를 부렸을 때, (다들, 술, 제발 조심하세요.) 바우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허연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안 돼, 바우야. 할머니는 바우의 등을 토닥였다. 사람을 물면 안 돼. 넌 사람을 돕고 구하는 아이잖니. 절대 사람을 물면 안 돼, 평생. 약속하렴.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물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

바우는 할머니를 사랑했고, 할머니의 말씀은 맞는 말이었다. 바우는 할머니와 약속했다.

약속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기반합니다. 하느님께서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셨다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백성은, 의무와 조건이 아닌 하느님과의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웃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같은 동물들끼리 이리거나

애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 그냥 여기 머무르게 하자. / 어차피 큰 애들은 다 사라져서 이제 오지 않을 거야. / 보호소에서 데려간 게 아니라 개장수들이 가로챈 것 같아. / 쫓쫓. 안타깝게 되었네. / 하여간 인간이 참 잔인해. / 그런 말 몰라? “같은 동물들끼리 이리거나?” / 맞는 말이다. 참...

하양은 산장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두 번 다시 자기와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혼자서”도

슬펏지만 어제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배를 채우고 물을 마셨다. 산장과 눈 덮인 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싫어. 당신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언제고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당신들은 내 친구들처럼 나한테 해주지 않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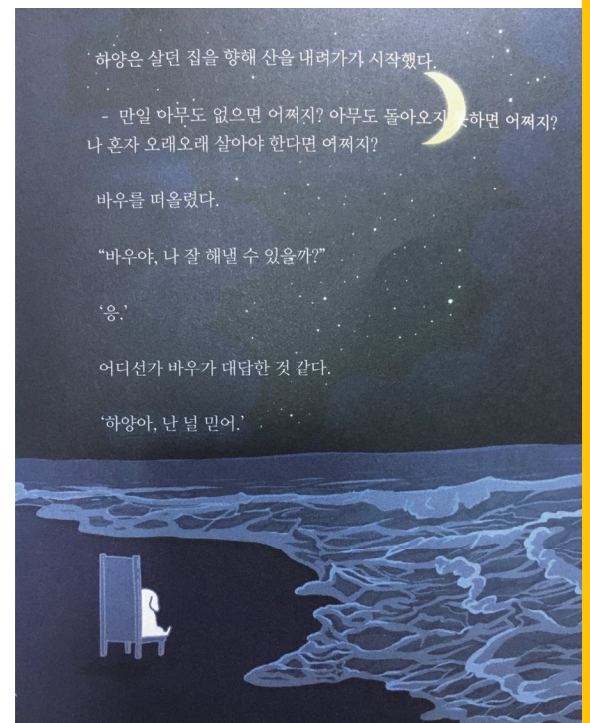
친구들을 생각했다. 힘들었지만 참 좋았다. 추웠지만 포근했고 배가 고팠지만 편안했다. 좋았던 날들이었다. 못나고 한심한 우리들끼리 서로 돕고 위해 주었다.

산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산길로 향했다. 희망을 갖기로 했다. 친구들 중 누구라도 올 수 있다. 자기 도움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기다리러 가자. -만일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지? 나 혼자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면 어쩌지? 바우를 떠올렸다. 어디선가 바우가 대답한 것 같다.

바우야, 나 잘 해낼 수 있을까? / 응. 하양아, 난 널 믿어.

예수바우께서 품으신 사랑의 힘은, 맨날 맨날 밤마다 산에 오르셔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신 홀로.의 힘입니다. 홀로.의 힘을 키운 이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서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를 믿고 너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에로의 부르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응답해야 하는 삶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데 그것이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고 제대로 응답할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예언자로 삼으셨고, 세상의 무수한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뽑으시고 당신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 왜 그들을 부르시고 뽑으셨을까? 바로 당신의 뜻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말해 이 땅이 당신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협조자를 택하신 것이다. 그 협조자들은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느님의 협조자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베드로, 바오로 성인

같은 유명하신 분들만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의 협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어떤 이는 그분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즉시 응답하지만, 다른 어떤 이들은 그 응답이 늦는 경우도 있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즉 성소에 대해 교회는 직무적 성소와 보편적 성소에 대해 나누어 설명을 한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와 같은 직무적 성소는 그 자체로 고귀한 소명이다. 하지만, 보편적 성소와 이에 대한 응답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 직무적 성소는 알맹이 잃은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도 진정 원하셨던 것은 직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무수히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다. 보편적 성소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수도자, 사제, 평신도, 그리고 비신자의 구별(심지어 차별)을 넘어 진정한 거룩함의 삶,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성소란 무엇일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당신과 함께하는 낙원에서의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셨다. 이 낙원에서의 삶은 사랑의 일치로 드러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살게 된다.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를 ‘사랑에로 부르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초대에 자기 비움과 자기희생의 사랑으로 응답을 드림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그분과 일치를 은총으로 받게 된다.

또 다른 보편적 성소는 ‘자비에로 부르심’이다. 주님의 자비에로 부르심에 용서로써 응답할 때, 그 부르심은 완성된다. 나아가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매 순간의 사랑의 응답이 모여 영원한 생명에로의 부르심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에로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예’라고 응답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면, 사제나 수도자로 살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든, 혼자 살든, 심지어 그리스도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나름대로 응답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 자연스럽게 불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일까?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 응답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영원한 생명에로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넘어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고 사랑이신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 하느님 안에 깊이 머물 때 그분의 사랑의 힘과 용서의 힘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고,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식별의 은총도 받게 된다. 내 안에 날마다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자.



일 립

견진성사

일시: 4월 28일(수) 19:30
장소: 하청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본당사목방문

일시: 4월 29일(목)
본당: 하동/ 진교

교구/본당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4월 29일(목) 11:00
장소: 교구청

청소년 사목자 연수

일시: 4월 28일(수) 09:30~19: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그리스도인 돌봄 교육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취소 및 연수 책자 신청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에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를 취소합니다. 연수 책자만 신청받습니다.
내용: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교안 보급
주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책자비: 7천 원

신청: 5월 16일(주일)까지
※ 마감 이후 신청 불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4월 28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5월 100단 묵주기도 행사

일시: 5월 17일(월) 08: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회비: 1만 5천 원
대상: 교구 신자 누구나
접수: 4월 30일(금)까지, 선착순
문의: 회장 010·9399·5454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기 타

미혼모의 따뜻한 보금자리, 인천자모원

내용: ·출산, 건강회복, 자립지원 무상 제공
·학생 미혼모를 위한 바다의 별 대안학교
입소 문의: 032·772·0071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피정

일시: 5월 23일(주일) 10:00~17:00
장소: 부산가톨릭신학대학
대상: 35세 미만 여성/ 회비: 5천 원
문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010·9610·5366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자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월 2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 순례 때 우리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찾아온 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로부터 다시 한번 이사악의 탄생 예고를 듣습니다(창세 18,10 참조). 그때 천막 어귀에 있던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다음 해, 곧 아브라함이 백 살이 되던 해에 이사악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그라르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브에르 세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 순례지인 브에르 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네겟 사막의 중심 도시로 이스라엘에서 자연강우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방한계선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2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곳에 우물을 파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라르의 임금 아비멜렉에게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주고 맹세함으로써 계약을 맺었습니다. 브에르 세바란 ‘맹세의 우물’을 의미합니다(창세 21,30-31).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느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어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창세 22,2).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저항하지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야 땅에 있는 어떤 산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3일째 되는 날 모리야 산어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그곳에 남겨 두고 이사악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이사악은 자신을 불사를 장작을 지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는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습니다. 둘이 함께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사악에게 하느님의 명령을 설명해 주었을까요? 이때 이사악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사악은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악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중지시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리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22,16-18) 아브라함은 다시 브에르 세바로 돌아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이 이야기의 목적은 자식을 희생제사로 바치던 관습을 반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장자 대신 제물을 바치게 된 관습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는 사라의 장례와 이사악의 결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곧, 이사악을 바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떠남’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12,1의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고향, 친척을 떠나는 여정은 익숙한 것, 안전한 것에서 미지의 것, 불안정한 것으로의 떠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창세 22,2도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령 또한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을 떠나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이란 미지의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떠남을 통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훨씬 능가하는 하느님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느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2역대 20,7; 이사 41,8; 야고 2,23).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났기에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